

‘사랑의 온도탑’ 3도 높인 LG의 120억 성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1년간 기탁
“연말 맞아 온정 필요한 이웃에 보탬을”

LG가 올 겨울에도 이웃들과 온도를 나눈다.

LG는 5일 서울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120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화문광장 ‘사랑의 온도탑’ 온도도 약 3도 상승했다.

이날 행사에는 ㈜LG 이방수 CSR팀 부사장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종석 회장이 참석했다.

성금은 사회취약계층 기초생계 지원과 주거 및 교육환경 개선, 청소년 교육사업 등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방수 부사장은 “연말을 맞아 우리 사회의 온정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LG



LG는 5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이웃사랑성금 12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방수(주)LG CSR부사장(왼쪽)과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

가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해 진정성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익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는 1999년부터 21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800억원 이상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해왔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脫대부 ‘P2P금융’



기지수첩

김유진
(파이낸스&마켓부)

중금리 대출도 법의 보호 아래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과 중소기업자들이 P2P금융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원활하게 받아왔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31일을 기준으로 협회 회원사의 누적 대출 취급액은 5조3077억원을 넘는다. 공시를 시작한 2016년 6월 말 1525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장세다.

법 제도를 받기 전 P2P금융은 제대로 된 규제가 없어 대출, 투자사기가 난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산업의 핀테크 활성화와 중금리 대출시장 확대 등 밝은 청사진을 기대했고 결국 P2P금융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섰다.

P2P 제도에 따르면 P2P업체는 최소 5억원의 자기자본을 갖춰야만 영업 등록을 할 수 있고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세금은 현재 투자로 얻은 소득에 27.5%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15.4%로 낮아진다. 시중은행에 적금 수준이다.

이제 막 서막을 올리기 시작한 P2P금융이 건전하고 안전한 연 수익률 10%가 넘는 투자 상품들이 준비하다.

이제 막 서막을 올리기 시작한 P2P금융이 건전하고 안전한 연 수익률 10%가 넘는 투자 상품들이 준비하다.

이제 막 서막을 올리기 시작한 P2P금융이 건전하고 안전한 연 수익률 10%가 넘는 투자 상품들이 준비하다.

이제 막 서막을 올리기 시작한 P2P금융이 건전하고 안전한 연 수익률 10%가 넘는 투자 상품들이 준비하다.

이제 막 서막을 올리기 시작한 P2P금융이 건전하고 안전한 연 수익률 10%가 넘는 투자 상품들이 준비하다.

코트라, 사회적가치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KOTRA(코트라)가 오는 15일까지 ‘국민과 KOTRA가 함께 만드는 사회적가치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에서 코트라는 무역·투자 기능과 연계된 사회적가치 사업과 혁신적 서비스 관련 아이디어를 찾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내벤처 설립 ▲채용제도 개선 ▲전국 조직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

공인 마케팅 경쟁력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체류 국민 안전 강화 ▲혁신적 서비스와 홍보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한다. 선정 결과는 2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코트라 사업에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대상 200만원(1명), 금상 100만원(1명), 은상 50만원(2명)이다.

안영주 코트라 사회적가치실장은 “우리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KOTRA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회적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오늘의 운세 12월 6일(음 11월 10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소원성취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 48년생 동분서주해보야 이득이 많지 않다. 60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72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않는 법. 84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 37년생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을 수 있다. 49년생 귀인이 나타나니 좋은 투자처가 생긴다. 61년생 김칫국부터 마시다가는 낭패를 본다. 73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 85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별로 없다.
- 38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50년생 오늘 준비해야 내일이 기다려지는 법. 62년생 삶은 계속되고 아직 꿈꿀 시간은 많다. 74년생 오늘 하루는 화려한 복장이 어울린다. 86년생 사소한 실수로 일이 틀어질 수.
- 39년생 먹거리를 선물 받는다. 51년생 공들인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63년생 어린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니 주의. 75년생 배우자가 고생을 알아주니 피곤이 풀린다. 87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자.
- 40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52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마음이 불편. 64년생 동료와 의견 차이로 약간의 손해가 발생. 76년생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반드시 메모. 88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피하라.
- 41년생 신중히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 53년생 모난 돌이 정맞는 법이니 인색하지 마라. 65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쇼핑을 하는 것도 좋다. 77년생 자식의 재능이 많아 오히려 근심. 89년생 피곤한 날이니 돈거래는 하다가 다들 수.

- 42년생 쉽게 처리된 일이 성과는 늦게 나타난다. 54년생 지치가 쉬우니 휴식을. 66년생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면 만회하기 어렵다. 78년생 기쁨은 근심을 동반하니 검소하게. 90년생 어느 방향으로 떠나도 거칠 것이 없다.
- 43년생 요행수를 바라다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 55년생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 67년생 소금장사 나서는 데 비 오는 격. 79년생 관청으로부터 큰 일거리를 맡는다. 91년생 알 수 없는 향기에 취해 시간을 낭비.
- 44년생 심신은 고단하나 재물은 들어온다. 56년생 화려한 상대를 만나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느껴진다. 68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80년생 구름 속 태양을 의심하지 말고 노력. 92년생 음주는 주의하라.
- 45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유쾌한 만남. 57년생 양보다는 좋은 품질로 승부. 69년생 지척에 상대보다는 결점을 보완하자. 81년생 올바른 처신은 구설수를 예방한다. 93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하게 된다.
- 46년생 무조건 안 쓰기보다는 화기에 예민한 모임을 해보자. 58년생 자기 생각을 바로 말하지 마라. 70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82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94년생 이직에 드르지 마라.
- 47년생 상황판단이 빨라야 손해 보지 않는다. 59년생 지위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행동. 71년생 자식이 좋은 평가를 받으니 구름을 탄듯하다. 83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소주 생각. 95년생 늦었다 싶어도 빨리 행동해야 후회없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 | | | | | | | | |
|---|---|---|---|---|---|---|---|---|
| | | | 6 | | | | | |
| 3 | | 6 | 7 | | 4 | 1 | | 2 |
| 4 | 5 | | | | | | 9 | 3 |
| 7 | | 4 | | | | 2 | | 8 |
| | | | 6 | | 8 | | | |
| 6 | | 2 | | | | 9 | | 1 |
| 2 | 6 | | | | | | 1 | 9 |
| 5 | | 3 | 9 | | 6 | 8 | | 4 |
| | | | | 3 | | | | |

| | | | | | | | | |
|---|---|---|---|---|---|---|---|---|
| | | | 4 | | 8 | | | |
| | 3 | 8 | | | | 4 | 5 | |
| | 2 | | 9 | | 3 | | 8 | |
| 1 | | 3 | | 4 | | 8 | | 6 |
| | | | 7 | | 9 | | | |
| 2 | | 7 | | 8 | | 9 | | 3 |
| | 6 | | 8 | | 5 | | 3 | |
| | 7 | 5 | | | | 1 | 6 | |
| | | | | 2 | | 6 | | |

| 스도쿠 정답 | | | | | | | | |
|--------|---|---|---|---|---|---|---|---|
| 9 | 2 | 5 | 3 | 8 | 6 | 7 | 1 | 4 |
| 7 | 8 | 9 | 1 | 6 | 5 | 2 | 3 | 8 |
| 6 | 1 | 8 | 7 | 5 | 8 | 9 | 2 | 3 |
| 1 | 5 | 6 | 8 | 7 | 3 | 8 | 9 | 2 |
| 2 | 8 | 7 | 8 | 9 | 5 | 1 | 6 | 3 |
| 8 | 9 | 2 | 5 | 6 | 1 | 7 | 8 | 3 |
| 5 | 6 | 9 | 1 | 8 | 2 | 3 | 7 | 4 |
| 3 | 8 | 1 | 7 | 5 | 2 | 9 | 6 | 8 |
| 5 | 7 | 4 | 6 | 9 | 8 | 1 | 2 | 3 |
| 8 | 6 | 5 | 9 | 2 | 1 | 7 | 8 | 3 |
| 2 | 9 | 1 | 7 | 6 | 5 | 2 | 3 | 8 |
| 7 | 8 | 5 | 1 | 8 | 2 | 9 | 6 | 3 |
| 5 | 7 | 6 | 1 | 8 | 9 | 2 | 5 | 3 |
| 5 | 1 | 2 | 6 | 8 | 9 | 7 | 8 | 3 |
| 1 | 8 | 9 | 8 | 5 | 6 | 7 | 2 | 3 |
| 6 | 5 | 7 | 2 | 1 | 8 | 9 | 6 | 3 |
| 2 | 3 | 8 | 9 | 7 | 6 | 1 | 5 | 4 |



김상회의四季 아이의 미래 찾아본다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학교 성적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다고들 말한다. 적성일 것이다. 적성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 일에 잘 맞는지를 보는 것이다. 어렵게 취업하고도 회사를 그만두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 중에 37%가 퇴사를 했다.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두는 경우가 32%나 됐다. 적성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적성을 잘 알아줘야 대학교 전공을 정할 때나 취업 때 실수를 하지 않는다. 적성은 태어날 때부터의 성품을 바탕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아이의 사주가 어떠한지를 먼저 보는 게 정확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사주에 식신이 많으면 그 아이는 남들에게 베푸는 일을 좋아하고 반려견 등을 잘 보호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 이런 아이는 동식물을 다루는 직종으로 가면 좋다. 교육계로 나서거나 연구원 같은 일도 잘 어울린다. 상관이 많은 사주는 남들 앞에 나서서 걸 좋아하고 색다른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방송과 관계된 업무를 맡아서 하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이 기발하니 발명가나 제품을 개발하는 기획부서로 가면 천직에 가깝다. 사주에 정관이 있다면 공무원 쪽이 잘 맞는다. 정관은 주어진 그대로 또는 원칙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성격이다. 꼼꼼함이 필요한 재정 분야에서 일하면 재능을 발휘하기 좋다.

이렇게 사주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좋아하는 일이 다르고 잘할 수 있는 직종이 다르다. 특성에 맞지 않는 일을 택하면 언젠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 적성을 찾는 건 부모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아이를 지켜보는 사랑이 우선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433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42호